제8강 프란시스 베이컨 : 신경 충돌을 통한 사물로부터 야생적 이미지의 생성 I

(1교시-0723-01)

※ 프란시스 베이컨(Bacon Francis, 1909~1992)
영국, 더블린 출생으로 16세 때 가정을 떠나 독학으로 실내장식을 익힘.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유채화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 강렬한 표현력으로 주목을 끌었다. 작품의 주제가 되는 인물, 동물은 과거의 명화나 사진을 통해 얻었다. 초기작품은 초현실주의에 가까웠으나 후기에는 추상표현파와 비슷한 점을 보인다.

◎ 신경 체계적 감각

* 그림 1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 연구>(1952)

- 고뇌에 빠져 심하게 몸을 구부려 웅크리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
- 고뇌와 웅크린 몸의 구분 : '웅크린 몸'은 그의 고뇌를 지칭하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 → 기호적인 상상에 의해 그의 고뇌를 이해. (그려지지 않은 고뇌에 대한 이차적 상상 단계가 필요하다.)
- 고뇌와 웅크린 몸의 완전한 합일 : 있는 그대로 지각. → 사유가 개입할 틈이 없이 그 자체로 웅크린 몸을 직접 볼 수 있게 됨. (회화적 이미지=상징적 이미지)
⇒ ① 고뇌가 몸 전체로 빠져나와 한껏 퍼져 있어야 할 것.
② 그저 외관상 보이는 몸이 아닌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몸을 그려야 할 것.
③ 몸뿐만 아니라 배경마저 급격한 사건 중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야 할 것.(전체의 공간이 고뇌로 흘러넘치면서 특별히 웅크리고 있는 몸이 전체 공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 감각(한 인간을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으면서 주변의 배경을 소스라치게 만들고 그 자신도 지독하게 떨리도록 만드는 것.)

- 주변의 모든 사물을 뒤덮고 있는 시각적인 내용들처럼 반듯하게 정리 정돈된 감각적인 질.
-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외부의 모습(예, 섬뜩한 느낌을 주며 우리의 몸을 수축하도록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막게 하는 등 마치 직접 우리 몸을 강타하는 것 같은 일을 일으키는 모든 것.)

☞ 프란시스 베이컨, "나는 항상 도살장과 고기에 관계된 이미지들에 의해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이미지는 십자가형과 밀접히 연관되지요. ..... 확실히 우리는 고기이고 힘 있는 뼈대들입니다. 정육점에 가면 나는 항상 저기 동굴의 자리에 내가 없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들뢰즈, 『감각의 논리』 p.46)
(→유추 : '나 역시 저기 짐승과 마찬가지로 고기고 뼈대가 아닌가. 저걸 보고 있노라니. 아! 내가 저 속에 빨려 들어가 함께 짐승이고자 하는구나. 그러고 보면, 나는 저렇게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 내고 잘게 썰려 팔릴 수 있는 존재였구나. 이 느낌이라니, 이는 얼마나 근원적인 감각이란 말인가.')
- 온 몸이 갈라지는 듯한, 온 몸이 섬뜩하게 전율하는 듯한 지독한 감정을 지칭.

www.artnstudy.com

⇒ 베이컨이 표현하고자 한 인간의 본 모습.(온 몸의 신경체계가 한껏 전율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자 함.)
⇒ 신경충돌에 의한 급격한 혹은 발작적인 감각 상태가 **변용, 변형, 해체, 용해, 이탈, 알갱이로 바스라짐, 액화, 반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물의 기기묘묘한 속성들을 망라하게 된다.

(2교시-0723-02)

◎ 베이컨의 이미지 리얼리즘

* 그림 2 <십자가>

- 1933년 24세의 베이컨이 처음으로 선보인 독창적 그림.
- 베이컨 그림에서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 형상의 내부와 외부가 함께 드러나는 묘한 표현.
- 베이컨, '가장 좋은 이미지는 스스로 우발적으로 다가온다.' (도미노, 『베이컨, 회화의 괴물』 p.111-113)
⇒ **우발성**의 강조 : 사물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보이는 이쪽으로 구멍을 뚫고서 터져 나오는 것. (사물 존재의 저쪽은 이쪽 작가의 가장 깊은 내면)

▶ 베이컨의 '나의 리얼리즘'

-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로 부름. **'이미지에로 깊이 있게 가닿기'**
- **이미지의 실재화**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들이 내게 보다 즉각적으로 실재적인 것이 되도록 감지할 것인가?"(도미노 p.53-54, p.51 참조)
→ ① 추상과 구상 모두를 거부.
② 이미지가 갖는 의존성과 인용성을 제거.
☞ 들뢰즈, "한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가면서 말해지는 이야기는 우선 회화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제거해 버린다." (들뢰즈, 『감각의 논리』 p.7)

- 베이컨 회화가 구현하는 이미지 리얼리즘의 요체 : 일상적인 도구성의 연속 계열로부터 독립하면서 정신적인 내면으로부터도 독립된 이미지의 구축. 즉, 대뇌피질의 지성적 작용이 가닿기 전, 이제 막 직접 신경에 작용을 가하는 상태의 이미지를 찾는 것.
☞ 미셸 레리스(베이컨의 그림에 대한 주석가)는 베이컨의 그림을 야생적 사실(la brutalite du fait)을 표현한 것이라 말함.
: 베이컨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가장 비난할 수 없고 가장 현실(실재)과 혼동되는 이미지를 부과하기 위해 그가 의존하는 수단을 볼라치면, 감정에 호소하는 구석을 떠올릴 수 없다. 말하자면, 진실을 추구하자는 주의(verisme)도 아니고 참상을 묘사하자는 주의(misérabilisme)도 아니고, 표현주의도 아니다. 다양한 사실의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명상도 아니고, 모티브의 놀라자빠질 특징(단지 도착된 탐미주의일 뿐인 것)에 대한 명상도 아니고,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질서가 지닌 어떤 특질들에 대한 연극적인 과장(낭만적인 웅변술에 속하는 태도)에 대한 명상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포착이 있다.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흔히 생살이 드러난 상처라고 말할 때처럼 신랄한 의미를 지닌 것이지, <불타오르는 현실성> 혹은 <가장 뜨거운 행위>와 같은 표현들에 호소하는 일화적인 의미를 띤 것이 아니다. (레리스(Michel Leiris), 『Francis Bacon ou

www.artnstudy.com

la brutalite du fait, l'ecole des lettres Sueil』 p.44-45)

www.artnstudy.com